

배포

2026. 9.1.(화) /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시계 빨라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는 10월 부지 조성 착공

- 사업자 선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10월중 부지 조성 착공 추진
- 9월부터 벌목·문화재조사 등 사전공사 전격 개시...보상절차도 연내 마무리
- 이성훈 사장 “선후 절차 과감히 병행, 소요기간 줄여 최대한 앞당길 것”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시계가 더욱 빨라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0월 용인 반도체 산단 1공구 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원 약 778만㎡ 부지에 반도체 공장 6기와 소재·부품·장비 기업, 발전 시설 3기와 산업용 가스 공급시설 등 첨단시스템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집적되는 단지다.
- LH는 지난 7월 이성훈 LH 사장 취임 직후 ‘용인국가산단 조성 사업 조기 완성’을 위해 획기적 일정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8년까지 반도체 팹(Fab) 1호기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CEO 주재로 매주 실적 점검 회의를 진행하며 기간 단축 및 절차 병행이 가능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여 왔다.
- LH는 사업자 선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10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 개찰 일자를 9월 23일로 앞당기고, 사업계획서 심사 등 절차별 소요 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였다.
- 또한 앞서 8월 18일 진행된 현장 설명회에서 LH는 입찰 참여사에게 공정가속 방안을 제안받아 이를 심사에 반영할 계획임을 알리며, 반도체 팹(Fab)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공정가속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보상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개시된 토지 보상은 추진 7개월 만인 현재, 발전소 등 주요시설이 들어가는 우선 구역을 포함한 보상대상 사유지 전체 면적의 99%(협의취득 완료 43%, 수용재결 신청 56%)가 절차 완료됐다. LH는 정부와 협의해 수용 재결 소요 기간 추가 단축을 통해 연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특히 10월 부지 조성 착공에 문제가 없도록, 9월부터 벌목 공사, 문화재 조사, 지장물 철거 등 착공 전 사전 공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 이성훈 LH 사장은 “산단 부지 조성 착공 조기화는 속도 혁신을 위해 종전의 업무 관행과 절차를 혁파한 결과이자 이례적 성과”라며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적 완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후 절차를 과감히 병행하고 소요 기간을 줄여 산단 조성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LH 용인사업본부	책임자	팀 장	윤기종	(031-338-4761)
				김성걸	(031-338-8360)
				지광석	(031-338-7680)
		담당자	차 장	박찬규	(031-338-4763)
				정의현	(031-338-8361)
				장재식	(031-338-7681)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기업이전단지 반영 전) >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항공사진(토지이용계획 반영) >